



미 증시, 시장금리 상승 등 기존 매크로 악재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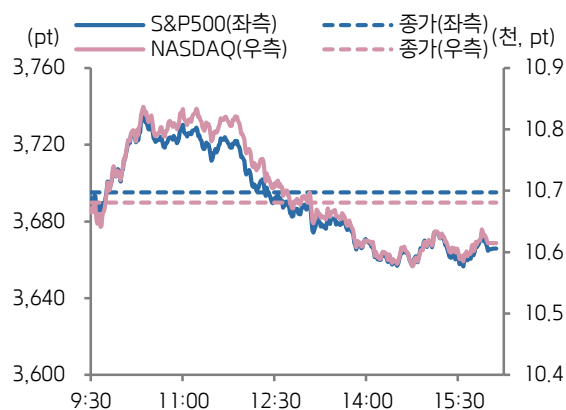
20 일(목) 미국 증시는 영국 총리의 사임 소식에 따른 영국발 정책 불확실성 완화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상회, 시장금리 강세 등이 장중 악세 압력을 심화 시키면서 하락 마감(다우 -0.3%, S&P500 -0.8%, 나스닥 -0.61%)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내려오겠지만 2024 년까지도 2%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올해 6%까지 하락하고, 내년 말에는 4%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는 4.5~4.75%가 적절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금보다 금리를 훨씬 높게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4 만건(예상 23 만건, 전주 22.6 만건)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10 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8.7(예상 -5.0. 전월 -9.9) 기록하며 2 개월 연속 감소. 집계측은 출하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이고 특히 6 개월 이후의 전망치가 급격히 악화되며 수요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시사. 9 월 기존주택매매는 전월대비 -1.5%(예상 -2.1%, 전월 -0.8%) 감소하며 부진, 2020 년 5 월 이후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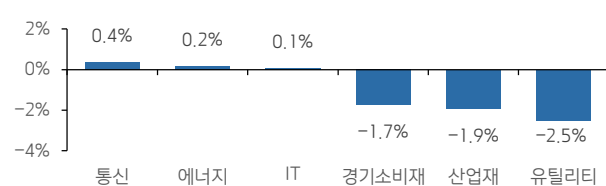
업종별로 통신(+0.4%), 에너지(+0.2%), IT(+0.1%) 업종은 강세, 유틸리티(-2.5%), 산업재(-1.9%), 경기소비재(-1.7%)업종은 약세. 엔비디아(1.19%), 마이크론(1.26%), AMD(0.94%), AMAT(1.81%) 등 반도체관련주들의 반등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테슬라(-6.65%)는 전일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영향 지속되며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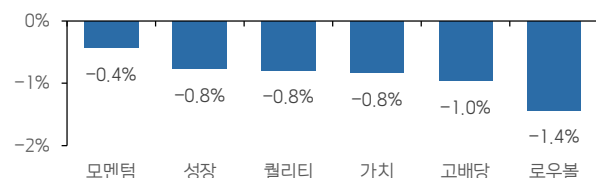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665.78	-0.8%	USD/KRW	1,432.31	+0.41%
NASDAQ	10,614.84	-0.61%	달러 지수	112.86	-0.11%
다우	30,333.59	-0.3%	EUR/USD	.98	+0.03%
VIX	29.98	-2.54%	USD/CNH	7.26	+0.02%
러셀 2000	1,704.39	-1.24%	USD/JPY	150.12	-0.02%
필라. 반도체	2,253.22	+0.6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429.60	-2.55%	국고채 3년	4.350	+1.4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435	+3bp
Eurostoxx50	3,492.85	+0.62%	미국 국채 2년	4.610	+5.4bp
MSCI 전세계 지수	563.06	-0.38%	미국 국채 10년	4.228	+9.5bp
MSCI DM 지수	2,429.26	-0.4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64.76	-0.13%	WTI	84.51	-0.01%
MSCI 한국 ETF	49.54	-0.02%	금	1636.8	+0.1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6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4%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30.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4.2%대를 돌파한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이 국내 성장주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2. 엔/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인 150 엔 돌파 여부 3. 레고랜드 사태 관련 루머성 뉴스플로우 추가 확산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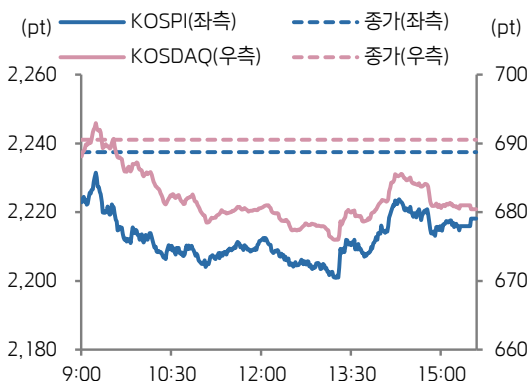
차주 블랙아웃기간(FOMC 이전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연준의 긴축 경계 심리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연준 인사들 대부분이 정책금리 상단이 4.75%(현재 상단 3.25%)가 될 것이라 전망을 내세우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하게 하락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려는 모습.

더 나아가, 시장참여자들은 내년 1월 FOMC 때 기준금리 상단이 5.25%(11월 75p, 12월 75bp, 1월 50bp 인상)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미 10년물 금리가 4.2%대를 상회하는 등 금리 급등이 증시 밸류에이션 및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달러 인덱스는 9월 말 114pt 후반대에서 고점을 찍고 112pt 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영국과 일본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이 외환시장을 중심으로한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또 다른 고민 요인. 영국의 경우, 파운드화와 국채금리의 변동성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트러스 총리의 사임으로 기존 감세안 전면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9월 이후 시작됐던 영국발 금융 불안은 정점을 형성한 것으로 보임.

현재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으로 1) 미국과의 정책금리차 확대(미국 3.75% vs 일본 -0.1%), 2)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완화 기조 유지 등으로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 전일 한국 포함 아시아 증시가 장중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도 달러/엔의 상징적인 레벨이자 심리적 저항선인 150 엔선 돌파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 물론 BOJ 가 직접 환시 개입 및 YCC(수익률곡선 통제)를 단행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기는 함. 그러나 현재 엔화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가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엔화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험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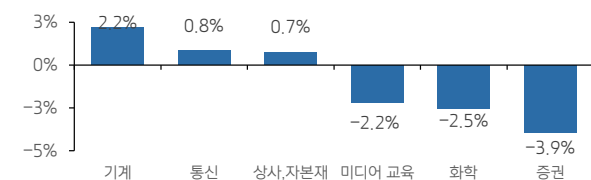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약세 속 엔화 및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여파로 하락 마감(코스피 -0.9%, 코스닥 -1.5%). 금일에도 상기 매크로 불확실성(시장금리 상승, 일본 문제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테슬라 주가 급락, 미국 금리 상승 등이 국내 성장주 호전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이나, 엔비디아(+1.2%), 램리서치(+7.8%) 등 반도체주들은 주가 바닥 인식 및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 시 반도체 포함 개별 실적 호전주들의 주가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 한편, 최근 들어 미상한 문제에 휩싸인 레고랜드의 ABCP, PF 관련해 특정 회사 부도설 등 루머성 재료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루머에 주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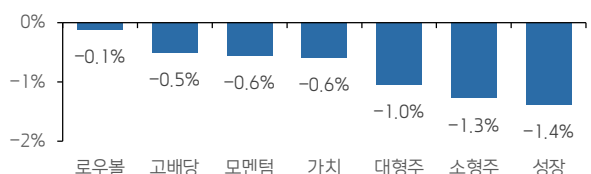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E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취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